

[報 文]

道袍에 관한 研究

李 明 姬*

A Study on Dopo, Korean Man's Robe

Myoung-Hee Lee*

—Abstract—

This article is to study Dopo, man's traditional robe, which was worn by courtiers and scholars in Yi dynasty (AD 1392—1910).

This article deals with its history and transition according to relative documents available, and presents its construction method with reference to relics.

It is recorded that Dopo was first worn about the middle of the time of Yi dynasty. Dopo, however, seems to have its origin in the robe of Koguryo dynasty (BC 37-AD 668).

Dopo was an ordinary robe to court officials, whereas Confucian scholars wore it as an official uniform or a ritual robe.

It was a long over-coat with V-neck line, and, round and wide sleeves. Dopo was so long that its edge reached wearer's ankles. One of the widest sleeves of relics was 58cm in size.

Another unique characteristics Dopo had, were that its back cloth splitted in two on center line, which was fully covered and added with-another cloth called 'Jeonsam'. Accordingly, a cloth-30cm in width and 30 yards in length-was needed to make Dopo.

Since the reform of 1894 it was prohibited to wear, and then was replaced with Durumagi, a strait collar and narrow-sleeved robe.

I. 緒 論

우리나라의 服飾은 中國服飾의 영향과 國俗維持의 경향으로 二重組織의 構造를 띄어 왔는데, 특히 官吏들의 便服은 다른 官服과는 달리 우리 固有 服飾의 영향을 잘 나타내준다. 官吏들의 便服이라함은 官外 平常服을 말하는데, 道袍는 朝鮮 中葉 以後 선비들이 가장 많이 着用했던 便服袍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흔히 惠園 申潤福의 風俗圖에서 갖을 쓴 道袍차림의 선비를 볼 수 있고 歷史小說에서도 道袍차림의 선비를 등장시키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道袍의 特有한 形態에 대해서는 그저 外觀으로 보아서 把握하기 어렵다. 道袍는 뒷자락이 두겹으로 되어있어 뒷 중심이 터져 있고 그 위에 展衫이 한점 더 붙어 있어 터진 곳을 가려준다. 그리하여

그 構成法은 다른 옷에서 볼 수 없는 獨創의인 方法이라고 할 수 있다.

近來에 韓國服飾史에 대한 關心이 커져가고 있는 가운데 服飾에 대한 史的理論의 體系化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服飾의 服은 오랜 시간이 經過됨에 따라 消失될 가능성이 있는지라 그 具體的인 構成法까지 상세히 記錄하여 두는 것이 보다 確實한 우리 服飾文化 保存을 위해서 必要할 줄 안다.

그러므로 本論文에서는 道袍의 치수, 마름질, 바느질등의 構成法을 중심으로 하여 理論의 背景을 함께 다루고자 한다. 그 對象으로는 文獻과 實物을 함께 다루었으며 肖像畫, 風俗圖등도 參考로 하였다. 實物로는 梨花女子大學校 家政大學, 建國大學校 博物館, 昌德宮의 所藏品을 參考로 하였으며 이들의 實測値와 바느질法을 基礎로 道袍를 다시 製作해 보았다. 그리하여 道

* 建國大學校 家政大學 講師

Lecturer,

College of Home Economics
Kon-Kuk University

袍에 대한 具體的인 概念과 함께 다시 製作할 수 있는 可能性을 提示하고자 한다.

II. 道袍의 由來

道袍에 대한 記錄은 宣祖 40年 4月 李弘望이 草綠袂 道袍를 입었다는 것이 제일 처음 나온다.¹⁾ 또한 孝宗 實錄에 의하면 道袍를 입는 制度는 壬辰亂 以後부터 있었다고 한다²⁾. 그러므로 道袍는 朝鮮 中葉 壬辰倭亂 以後부터 着用된 袍라 할 수 있다.

道袍의 起源에 대하여 李瀛은 「道袍는 원래 比丘의 圈套인 바 中國의 僧衣가 道袍 모양과 같고 우리나라 僧服인 長衫과 동일하며 또 명칭으로 보아서도 道服임이 분명하다」³⁾고 하였다. 또한 李圭景도 「道袍는 道教와 佛敎에서 나온 뜻으로 지금의 道袍 즉 道服이다. ... 우리나라에서 僧이 常時 입는 옷을 長衫이라 불렀는데 그 모양은 道袍와 비슷하였다」⁴⁾고 하였다. 즉 李瀛과 李圭景은 道袍가 僧服인 長衫에서 나왔다는 것이다. 長衫은 僧의 禮服으로서 모양은 두루마기 비슷하면서 소매가 넓고 길다.

그러나 韓元震의 「南塘草稿」에서 보던 「士子の 出入 上服은 爲官者가 입은 直領公服으로 할 수 없으므로 直領에 따라 조금 그 제도를 변경하여 道袍를 만들었으니 道袍의 前面은 直領과 같으며 後面은 直領의 二葉衫을 道袍에는 衣裏汗版 左右에 展附한 것이 다르다」고 하였으니 道袍가 直領에서 변하여 생겼다는 것이다. 金東旭은 道袍가 僧服에서 나왔다는 것은 이들 形態가 直領이기 때문에 이런 理論이 나온 것이며 高麗代의 直領이 변하여 直領公服이 되고 여기서 道袍도 生成됐으리라고 하였다.⁵⁾ 柳喜卿도 道袍가 高麗의 白紵袍, 朝鮮의 直領袍를 主軸으로 하여 생겨난 것이라고 함이 옳다고 하였다.⁶⁾

道袍에 영향을 준 高麗時代의 白紵袍는 王이하 平民에 이르기까지 널리 着用되었던 袍이다. 그 그림이 <圖 1>과 같이 高麗鏡 背面에 남아 있다. 그러나 그 자세한 形態는 把握하기 어려우며 허리에 帶를 맨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서 白紵袍의 構造를 알기 위해 같은 時代의 白紵窄衣를 檢討해 보면 그것은 白紵袍보다 소매가 좁고 길이가 짧으며 허리에 帶를 맨다. 그러므로 白紵袍는 高句麗 壁畫에서 볼 수 있는 袍(圖2참조)가 高麗時代에 들어와서 元나라 制度의 영향을 받아 다소 變化된 袍임을 알 수 있다.

또한 直領袍는 朝鮮 世祖 以後에 記錄에 나오는 袍로서 金東旭은 그의 「便服袍制 變遷圖」에서 直領袍의 根源을 白紵袍에 두면서 明制의 영향을 함께 받은 것으로 나타내었다.⁷⁾ 直領袍의 形態는 <圖3>과 같다. 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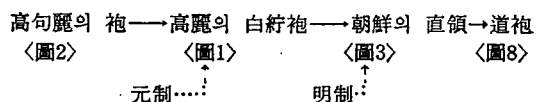
<圖 1> 白紵袍(金東旭, 「韓國服飾史研究」所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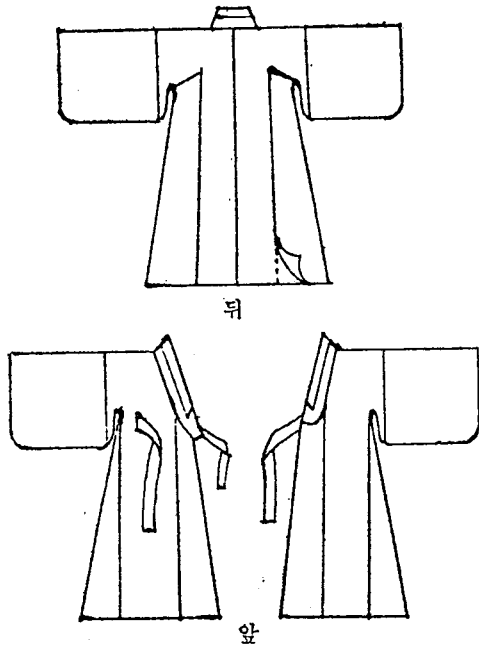


<圖 2> 高句麗의 袍

袍(圖8참조)와 다른 점은 直領袍에는 양옆에 官服의 圓領과 같은 「무」가 있는데 道袍에는 그러한 「무」가 없다. 또한 道袍는 뒷중심이 터져있고 그 위에 展衫이 한겹 더 붙었다는 점이 直領袍와 다르다. 그리고 깃, 설, 고름, 소매등의 全體的 形態는 道袍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 본 道袍의 由來를 整理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圖 3〉直領袍

III. 道袍의 着用과 그에 따르는 附屬物

道袍는 朝鮮 中葉 以後 朝官, 士庶가 平常時 表衣로서 着用하였으며 儒生은 公服이나 祭服으로서 着用하였다. 正祖代의 柳得恭에 의하면 直領이 武官의 常服인데 대하여 道袍는 儒者의 服, 朝士의 常服이라 하였다.⁸⁾ 또한 純祖實錄에 의하면 옛날에는 士大夫 便服으로 直領을 많이 使用하였으나 近世에는 道袍를 많이 使用한다고 하였다.⁹⁾ 道袍는 원래 賤者는 입지 못하도록 되었으나 朝鮮 末葉에 가서는 그 禁制가 잘 지켜지지 않아 하류계급에서도 道袍를 着用하는 일이 많았다.

道袍의 服色은 靑·白 二色이 있는데 吉服으로는 靑色, 常服으로는 白色을 着用하였다. 여기서 靑色은 실제로 玉色을 나타내기도 한다. 宣祖實錄에 記錄된 것은 草綠色으로서 李弘望이 草綠袂道袍를 입었기 때문에 이상하게 여겼다고 했다.¹⁰⁾ 또한 高宗皇帝 光武11年의 英親王 冠禮時에는 藍色 道袍를 着用하였다고 했다.¹¹⁾

허리에는 細條帶를 띠었는데 品位를 가려 堂上文官은 纁色 또는 紫色을 堂下官은 靑·綠을 使用하였으나 그 사이에는 수 많은 색이 있어 制度를 떠나 자유로이 선택하였다. 喪을 입으면 누구나 다 白色 細條帶를 띠었다.¹²⁾ 또한 童多繪(남작띠)를 띠기도 하였는데 品階가 높을수록 桃色, 紅色을 着用하였다.¹³⁾

이 道袍는 朝鮮末 高宗21年의 服制 變通時 다른 廣袖衣와 함께 廢止되었으며 두루마기로서 대신하게 되었다.¹⁴⁾

〈圖 4〉는 沈得經(1629~1710 仁祖~肅宗)의 肖像畫로서 玉色 道袍에 東坡冠을 着用하였으며 細條帶를 띠었다. 〈圖 5〉는 惠園 申潤福의 風俗圖인데 道袍에 黑笠을 着用한 모습이다. 오른쪽은 玉色 道袍에 細條帶를 띠었고 왼쪽은 白色 道袍에 童多繪를 띠었다.



〈圖 4〉沈得經肖像(東坡冠·道袍) (『韓國名人肖像大鑑』所載)



〈圖 5〉惠園申潤福風俗圖(黑笠·道袍)

여기서 道袍에 따르는 冠帽에 대해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원래 士大夫나 儒生들이 平居時에도 笠을 쓰고 손님을 맞이하는 것을 禮로 여겼는데 笠이 지추장스러움을 느껴 이를 代身하여 冠을 쓰게 되었다. 純祖代의 記錄에 의하면 士大夫들은 平常時 居處할 때 흔히 幅巾, 方冠, 程子冠, 東坡冠을 썼고 거리 위에서는 모두 笠을 썼다고 한다.¹⁵⁾ 이처럼 平居時 着用된 冠에는 여러 種類가 있어 선비들이 취미에 맞도록 썼는데 특히 道袍와 함께 着用된 冠에는 四方冠·東坡冠·儒巾이 있으며 外出時에는 黑笠을 着用하였다.

1. 四方冠

文字 그대로 四方으로 모가난 箱子 모양의 冠이다.

四方冠은 나이 삼십대 前後의 선비들이 집안에 있을 때 평소에 衣冠整齊의 뜻에서 着用하였다. 材料는 말총으로 엮었는데 前後左右의 四面과 위가 막히고 아래가 열려 머리에 쓰게 되었으며, 下狹上廣의 모양이다. <圖6>



<圖 6> 四方冠

2. 東坡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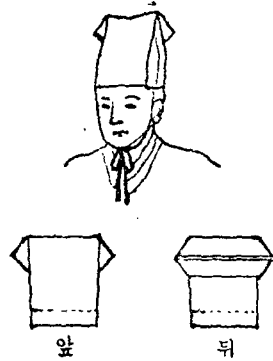
東坡는 中國 宋代의 선비인 蘇式의 雅號로서 蘇式이 만들었다는 冠이다. 朝鮮初에는 선비들이 平常時 冲正冠을 많이 썼으나 中期以後에는 冲正冠 대신 주로 東坡冠을 많이 썼다.¹⁶⁾ 역시 평소 집안에서 사랑방 등에 있을 때 着用하였다. 그 形態는 冲正冠처럼 二段으로 되어 2개의 冠을 합한 것과 같다. <圖4>

3. 儒巾

儒巾은 民字巾이라고도 하며 朝鮮初 부터 着用한巾으로서 흔히 儒生은 通常禮服으로 道袍에 儒巾을 쓰는 예가 많았다. 즉 儒生들이 平素에 독서할 때 또는 科擧試場에 나갈 때 儒巾을 着用하였다.¹⁷⁾ 그러나 儒生들도 路上에서는 역시 着笠하였다. 中國의 儒巾은 관대나 종이로 만들어 漆한 것 등이 있었으나 우리나라 儒巾은 모시나 무명으로 만들고 색채는 眞黑이다. 그 形態는 위는 平平하고 양측에 뿔이 있으며, 혹 儒巾 끈이 있어 갓끈처럼 잡아매기도 한다. <圖7>

4. 黑笠(갓)

朝鮮王朝 五百年동안 黑笠은 文武百官의 便服에 着



<圖 7> 儒巾

用한 冠帽로서 흰색 道袍를 입고 眞黑色 갓을 쓰고 步行하는 모습은 우리 민족 固有의 멋이라고 할수 있다.

笠의 起源은 三國時代부터이며, 笠의 種類에도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만 보통 갓이라고 하면 黑笠을 가리킨다. 黑笠은 高麗 恭愍王代에 成立되었다고 하나¹⁸⁾ 그 典型的인 樣式은 朝鮮 中葉에 와서야 成立되었다고 본다. 이 黑笠의 形態는 여러차례 변천을 거쳤는데 朝鮮初에는 帽가 높고 簷이 좁은 平淳子 形態였다가 中期에 帽가 높고 簷이 매우 넓은 形態가 되었다. 17代 孝宗代에는 帽자의 凉臺가 매우 넓어 門戶 出入에 방해가 될 정도로 커졌다고 한다.¹⁹⁾ 그 뒤에 笠體를 줄이려고도 하였으나 23代 純祖代에 와서는 簷이 더욱 넓어져 직경이 7,80센티가 될 정도였다고 한다.²⁰⁾ 그러나 大院君 집권 이후 이와같은 黑笠 形態는 帽가 얇고 簷이 좁은 小笠으로 개량하게 되었다.

黑笠의 基本 材料는 竹絲로서 이 竹絲를 엮어 그 위에 布·絲·馬鬣·豚毛등을 넣어 싸고는 거기에다 겹은 옷칠을 하였다. 또한 笠纒(갓끈)의 材料로는 木·竹·珊瑚·蜜花·水晶·象牙·琥珀·瑪瑙·玳瑁·布 등 여러가지가 있어 계급에 따라 使用하고, 庶民層은 布纒(비단끈)을 사용하였다.

이 黑笠도 원래는 班人階級の 전용물이었으나 1896年 단발령과 동시에 國末에는 上下·貴賤없이 누구나 다 着用하게 되었다.²¹⁾

다음에는 道袍에 따르는 신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朝鮮王朝 時代 신은 신목이 있는 靴와 운두가 낮은 鞋·履로 나눌 수 있으며 그 材料로는 皮草·草·麻·布帛·織·紙·木등이 있다. 道袍와 같은 使服에 着用한 것으로서는 皮革製에 太史鞋·발막신·경신·分套鞋·黑皮鞋(黑鞋)·雲鞋등이 있다. 太史鞋는 흔히 士大夫가 양반계급의 나이든 이가 便服차림시에 신었는데,

을을 형질이나 가죽으로 하고 코와 뒤축에 흰 線紋을 새겼다. <圖4>의 沈得經의 초상화에는 太史鞋비슷한 신을 着用했음을 볼 수 있다. 발막신은 上流階級の 老人들이 신는 마른신의 일종으로 뒤축과 코에 케멘 솔기가 없고 앞부리가 넓적하며, 가죽조각을 대고 輕紛을 칠했다. 정신은 가죽을 기름에 먹여서 만든 것으로 신창에는 짐을 막아서 사용했다. 分套鞋에 대하여서 李晔光은 「芝峰類說」에서 요즈음은 젊은자도 道袍를 입고 分套를 신는다고 하였는데²²⁾ 이는 추울 때나 비울 때 신던 덧신의 일종이었던 듯하다.

또한 朝鮮末에는 儒生들이 黑鞋, 雲鞋도 신었는데 雲鞋는 가죽신에 속하면서 검은 布帛으로 샀고 코와 뒤축에 雲紋을 놓은 신이다. 世宗實錄에 의하면 「옛 儒生들은 麻鞋를 신고 책을 들고 보행 하였다」고 하였으니²³⁾ 儒生들은 삼으로 만든 麻鞋도 신었음을 알 수 있다. 草製·麻製는 下流階級の 신이었으나 그 精製品은 士大夫의 便服에 使用되기도 하였다. 紙製는 下流階級の 신으로 兩班階級에서는 신지 않았다. 鍍製는 一般化된 것이 아니었고 木鞋(나막신)는 비울 때 着用했던 것이다.

IV. 실측치와 마름질

<圖8>은 梨大 家庭大에 所藏된 道袍의 실측치이다. →는경사의 바른울의 方向을 나타낸다. ①②③...은 表1의 比較項目, ④⑤⑥...는 <圖10>에서의 位置를 나타낸다.

道袍의 깃은 直領이며 소매와 품이 넓고 길이도 발목까지 미친다. 뒷중심이 터졌는데 그 위에 展衫이 한 겹 더 붙어 있어 뒷면이 두겹으로 되었기 때문에 터진 곳을 가려준다. 展衫은 馬上衣에서 뒤가 터졌을 때 下衣가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하여 展附한 것이다.²⁴⁾ <圖9>는 完成된 道袍의 뒷모습으로 展衫을 위로 제끼고 그 중심의 터진 곳을 나타낸다.

<表1>은 梨大, 建大, 昌德宮의 實物 실측치를 比較한 것이며 比較項目의 번호는 <圖8>의 번호와 同一한 位置를 나타낸다. 建大, 昌德宮의 깃은 朝鮮末에 着用했던 遺物이고 梨大의 깃은 우리옷의 保存을 위해 1957년경 昌德宮 상궁들에 의해 製作한 것이다. 建大, 昌德宮의 깃은 白色모시 홉옷이며 梨大의 깃은 玉色모시 홉옷이다.

建大, 昌德宮의 깃은 梨大의 깃 보다 全體的 크기가 더 크다. 특히 총 도련둘레가 87, 72cm씩 각각 더 길어 建大, 昌德宮의 깃은 아랫도련의 둘레가 매우 넓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화장도 6, 14cm씩 각각 더 길며, 소매넓이도 5, 6cm씩 더 넓다. 따라서 설넓이도 넓어

<表 1> 실측치 比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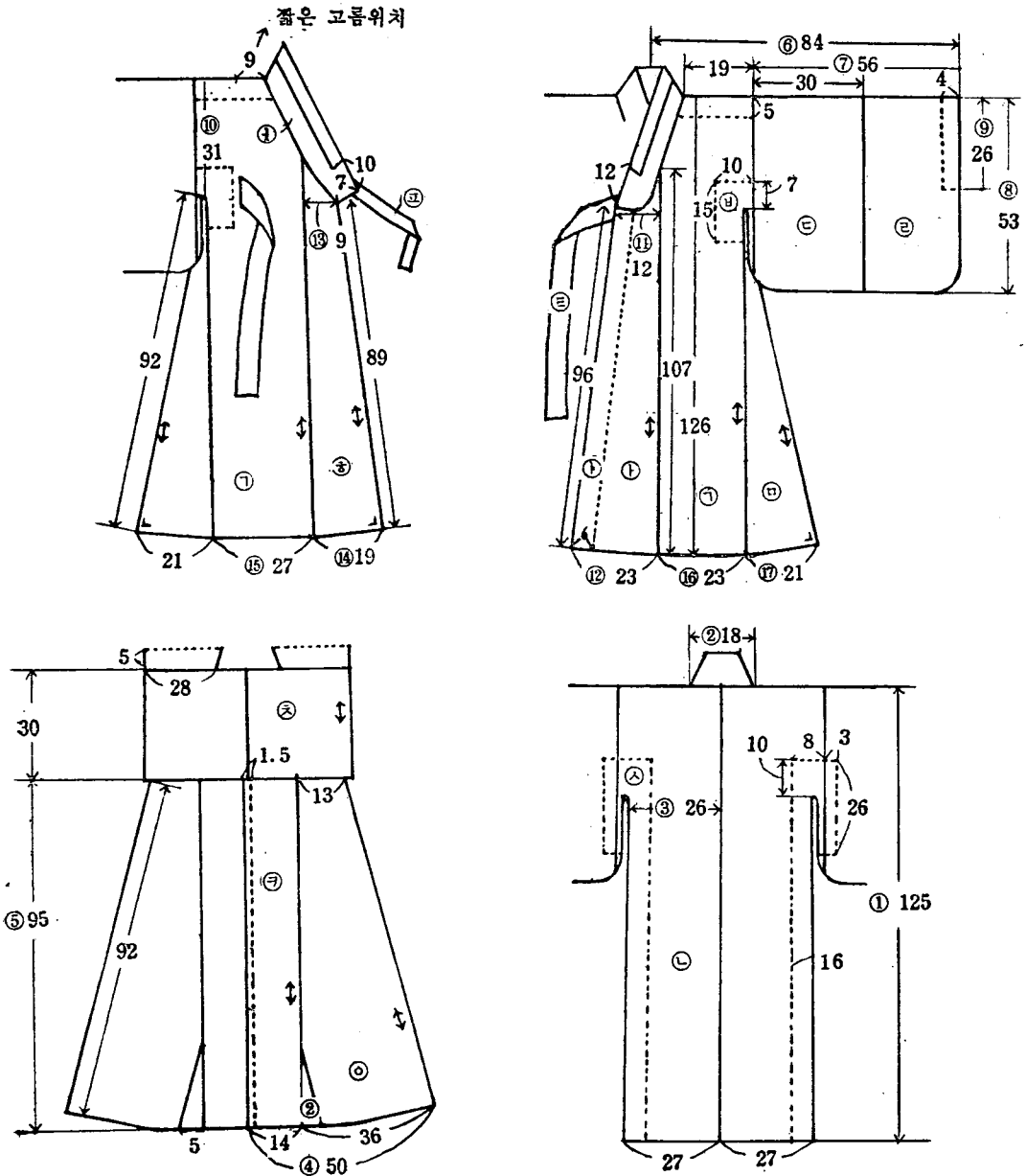
| 比較項目 | 遺物 | 梨大 | 建大 | 昌德宮 |
|-------------|----|-----|-----|-----|
| ① 총길이 | | 125 | 123 | 130 |
| ② 고대넓이 | | 18 | 20 | 19 |
| ③ 뒷품 위솔 | | 26 | 29 | 23 |
| ④ 뒷품 아랫도련 ½ | | 50 | 61 | 61 |
| ⑤ 뒤트임길이 | | 95 | 82 | 97 |
| ⑥ 화장 | | 84 | 90 | 98 |
| ⑦ 소매길이 | | 56 | 46 | 65 |
| ⑧ 소매넓이 | | 53 | 59 | 58 |
| ⑨ 수구 | | 26 | 32 | 26 |
| ⑩ 진동 | | 31 | 37 | 33 |
| ⑪ 결설넓이 上 | | 12 | 18 | 15 |
| ⑫ 결설넓이 下 | | 23 | 36 | 36 |
| ⑬ 안설넓이 上 | | 9 | 7 | 8 |
| ⑭ 안설넓이 下 | | 19 | 23 | 25 |
| ⑮ 앞길도련 右 | | 27 | 34 | 25 |
| ⑯ 앞길도련 左 | | 23 | 34 | 26 |
| ⑰ 앞길무도련 | | 21 | 36 | 36 |
| ⑱~㉑ 총도련둘레 | | 234 | 321 | 306 |
| ⑲ 깃넓이 | | 9.5 | 14 | 11 |
| ⑲ 길깃길이 | | 32 | 41 | 35 |
| ⑲ 안깃길이 | | 40 | 45 | 40 |
| ㉒ 동전넓이 | | 4.5 | 6.5 | 5 |

결설아래가 13cm까지 차이가 나며, 깃 동전도 이에 비례하여 넓이가 더 넓다. 道袍의 길이와 넓이는 각각 몸매에 따라 해야하며 정한 척도가 없다고 하였으나²⁵⁾ 본 실물의 차이는 着用者の 체격에 따른 것만이 아니라, 실제로 옛날에는 더 크기를 넉넉하게 하였기 때문에 크기가 크게 된 것 같다.

<圖10>은 道袍의 마름질법을 나타내는 것으로 옷감의 폭이 30cm일 때 총 소요량은 27마로 한다. 그러므로 넉넉히 여유를 두어 30cm폭 30마를 필요치로 정한다. ⑤안설, ①결설, ①결설안단은 한겹으로 하고, 나머지는 모두 두겹을 겹쳐 마름질한다.

V. 바느질

바느질이 어려운 부분은 거드랑이로서 결대와 무, 앞뒷길, 속뒷길, 소매를 함께 바느질 하는 곳이다. 이것은 진동은 展衫과 붙었으나 옆솔기는 속뒷길과 붙어 있어 뒷면이 二重構造를 나타내면서 걸으려는 바느질법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다. 아랫도련의 시접은 바느질하지 않고 풀로 붙였는데, 이는 세탁시에 옷감의 솔기를 뜯어서 하였기 때문에 풀칠로 단처리를 하였던 것이다. 어손울과 바른울의 솔기는 바느질한 후 시접은



- ⑩ 깃넓이 9.5
결깃길이 32
안깃길이 40
- ⑪ 동전넓이 4.5
안고름넓이 5
안고름길이 58
- 결고름넓이 8.5
결고름길이(大) 107
결고름길이(小) 86

<圖 8> 道袍의 실측치(단위 : cm)

서로 폴로 붙여 바른을 쪽으로 넘긴다.

다음은 바느질 순서를 說明한 것이다. 괄호안의 번호는 <圖8>, <圖10>에 표시된 번호를 뜻한다.

① 결섵을 입어서 왼쪽 앞길에 대고 박은 다음 시점을 섯쪽으로 넘긴다. (㉑+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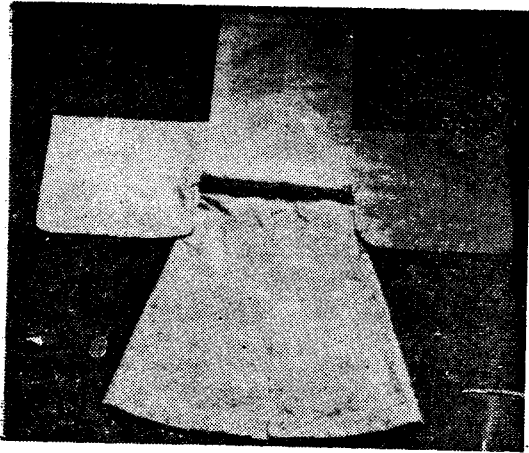
② 안섵을 오른쪽 앞길에 대고 박은 다음 시점을 길

쪽으로 넘긴다. (㉑+㉒)

③ 앞길무릎 앞길에 대고 박은 다음 시점을 앞길쪽으로 넘긴다. (㉑+㉒)

④ 앞길 결대의 시점을 접어서 앞길에 대고 폴로 붙인다. (㉑+㉑) <圖 11-1>

⑤ 소매를 이어서 앞뒷길과 진동선에서 달고 시점을



〈圖 9〉道袍(뒤)

가름술로 한다. (㉔+㉕+㉖㉗㉘) 이때에 앞진동선에서 앞깃결대를 앞깃과 함께 덧붙여서 박는다.

⑥ 등술을 박고 시점을 입어서 오른쪽으로 넘긴다. (㉙+㉚)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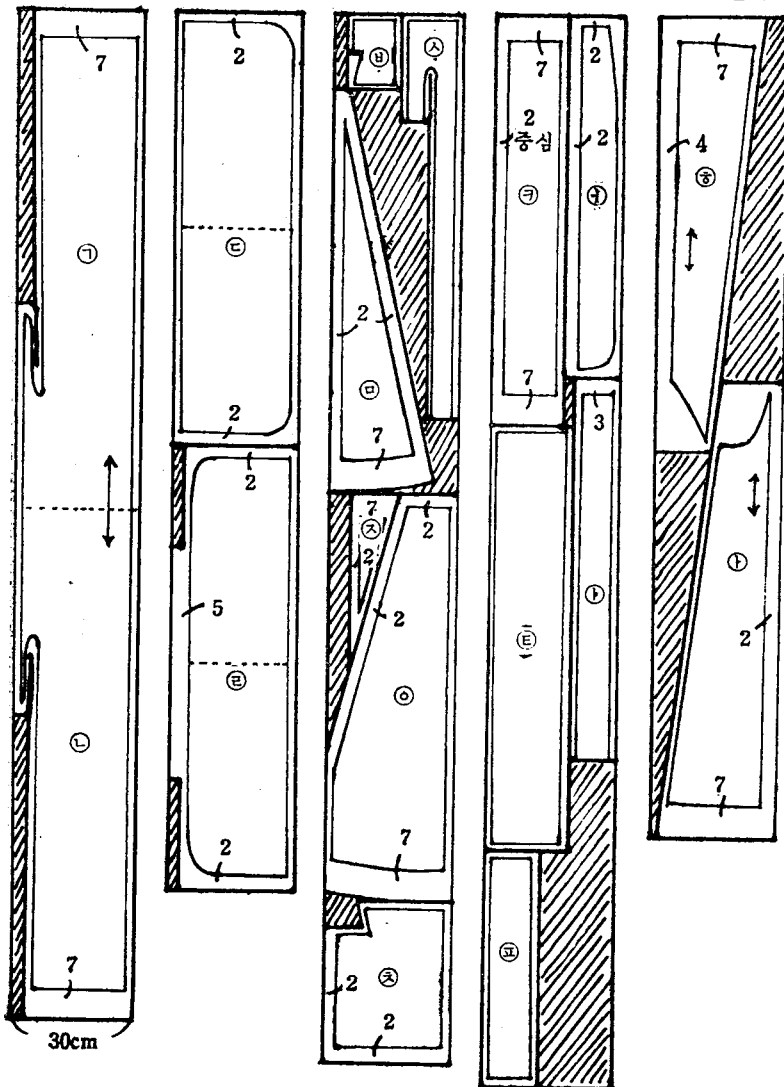
⑦ 속뒷길엽을 옆조각과 이어서 가름술로 한다 (㉛+㉜)

⑧ 속뒷길중앙의 중심쪽 시점을 두번 접어 풀로 붙인다. (㉝)

⑨ ⑦번과 ⑧번을 붙여서 시점을 중심쪽으로 넘긴다. (㉞+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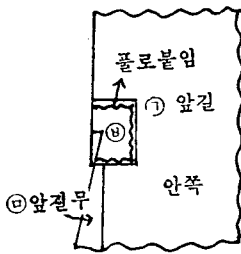
⑩ 속뒷길위의 등술을 박고 시점을 입어서 오른쪽으로 넘긴다. (㊱+㊲)

⑪ ⑨번과 ⑩번을 붙여서 시점을 위로 넘긴다. (㊳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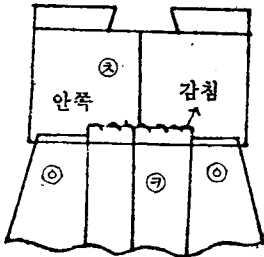


- ㉑ 앞깃
- ㉒ 뒷깃
- ㉓ 소매(안)
- ㉔ 소매(끝)
- ㉕ 앞깃무
- ㉖ 속뒷길(앞)
- ㉗ 뒷깃결대
- ㉘ 속뒷길(옆)
- ㉙ 속뒷길(옆조각)
- ㉚ 속뒷길(위)
- ㉛ 속뒷길(중앙)
- ㉜ 겹고름
- ㉝ 안고름
- ㉞ 안섶
- ㉟ 결섶
- ㊱ 결섶안단
- ㊲ 깃

〈圖 10〉道袍의 마름질(단위 : cm) ※ 시점의 치수가 표시되지 않은 부분은 모두 1cm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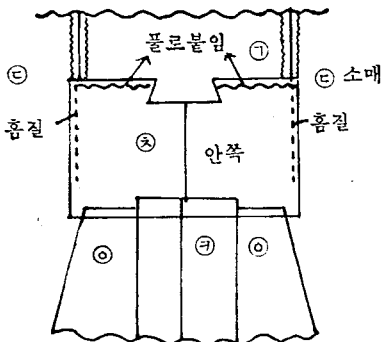
<圖 11-1> ㉓+㉑



<圖 11-2> ㉑+㉒, ㉑+㉓

+㉒) 여기서 속뒷길중앙의 시점을 접어서 속뒷길위에 대고 감친다. (㉑+㉒) <圖 11-2>

㉓) 속뒷길위의 등바대부분의 시점을 접어서 앞길어깨 쪽 위치에 맞추어서 폴로 붙인다음, 뒷길진동선에서 소매의 시점과 함께 홈질하여 고정시킨다. (㉓+㉑, ㉓+㉒) <圖 1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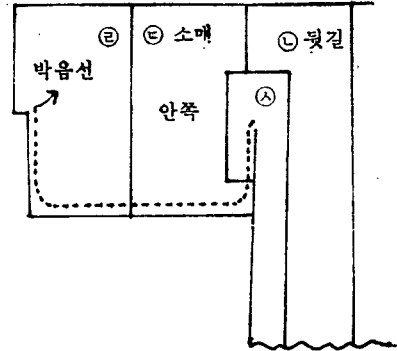


<圖 11-3> ㉓+㉑, ㉓+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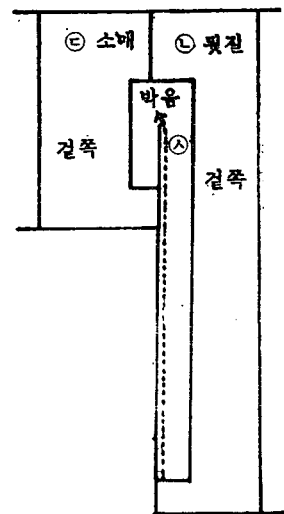
㉔) 뒷길결대를 제 위치에 대고 겨드랑이에서 시작하여 수구 위치까지 소매배래선을 따라서 박는다. (㉓+㉒+㉑+㉒) <圖 11-4>

㉕) 소매를 뒤집은 후 뒷길 결대를 뒷길 위치에 대고 겨드랑이에서 시작하여 뒷길 옆선을 박는다. (㉓+㉒) <圖 1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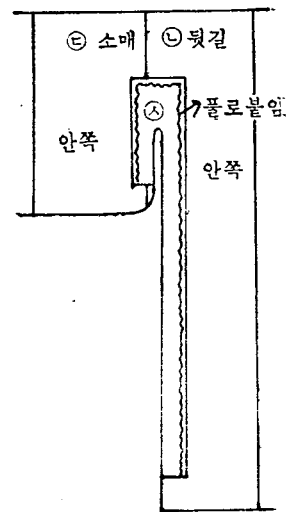
㉖) 뒷길결대의 시점을 접어서 뒷길과 소매에 대고 폴로 붙인다. (㉓+㉒+㉑) <圖 11-6>



<圖 11-4> ㉓+㉒+㉑+㉒



<圖 11-5> ㉓+㉒



<圖 11-6> ㉓+㉒+㉑

⑯ 속뒷깃옆과 앞깃무릎 붙여서 옆선을 박은 다음 시접을 뒤로 넘긴다. 이때 앞깃결대도 앞깃무와 함께 덧붙여서 박는다. (㉔+㉕+㉖)

⑰ 결선에 결선탄을 대고 락아서 이은후 안단의 시접은 한번 접어서 삶에 대고 풀로 붙인다. (㉑+㉒)

⑱ 안선탄을 두번 접어 풀로 붙인다.

⑲ 소매단과 아랫도리단을 두번 접어풀로 붙인다.

⑳ 저고리와 같은 요령으로 깃, 걸고름, 안고름, 동전을 만들어 단다.

VI. 結 論

이상에서 道袍의 由來와 着用에 따르는 附屬物 및 構成法 등에 대하여 살펴 보았다.

道袍의 生成時期는 朝鮮 中葉 宣祖時代 壬辰倭亂以後이며 그 起源은 三國時代의 袍에 둔다. 三國時代의 袍가 高麗의 白紵袍에 영향을 주고 다시 朝鮮의 直領이 된 후 直領에서 道袍가 形成된 것이다. 여기에서 물론 中國의 袍에서 영향을 받은 점도 있겠으나 그것은 附隨의인 것이고 道袍는 다른 官服의 袍와는 달리 우리 民族 固有의 袍가 發展되어 形成된 것이라 본다.

道袍는 朝鮮 中期以後 朝官, 士庶가 平常時 表衣로서 着用하였으며 儒生은 公服이나 祭服으로 着用하였다. 吉事 때는 靑色, 平時에는 白色을 입었으며 허리에는 細條帶를 띠었는데 品位를 가려 色을 달리했다. 머리에는 四方冠, 東坡冠, 儒巾, 黑笠등을 着用하였으며, 신발로는 太史鞋를 着用하는 경우가 많았다.

道袍의 形態는 요즈음의 두루마기와 같은 直領·설·고름이 달렸으나 소매와 품이 매우 넓고 길이도 길어서 발목까지 미친다. 넓은 것은 소매넓이가 58cm, 안선탄에서 결선탄까지의 총도리둘레가 321cm까지 되는 것도 있다. 또한 뒷중심이 갈라졌고 그 위에 展衫이 한쪽 더붙어있어 뒷면이 두겹으로 되었으므로 그 構成法이 다른 袍와 달리 매우 獨特하다. 즉 진동은 展衫과 붙었으나 옆솔기는 다른 속뒷깃과 붙어있어 뒷면이 二重構造를 나타낸다. 그러나 길이로 볼때는 二重으로 된 부분의 바느질 땀이 하나도 드러나지 않으므로 이러한 바느질법에서 우리 조상들의 슬기로움을 다시 느낄 수 있다. 마름질에 사용되는 옷감의 전체 必要量은 30cm폭으로 약 30마가 된다.

이 道袍는 朝鮮末 高宗21年の 服制 變通時 다른 廣

袖衣와 함께 입지못하게 하므로서 자취를 감추고 현재의 두루마기로서 대신하게 되었다.

引 用 文 獻

- 1) 宣祖實錄, 卷二百十, 四十年四月.
- 2) 孝宗實錄, 卷十八, 八年一月.
- 3) 李瀾; 星湖僿說, 下卷, 影印版, 慶熙出版社, 251 (1967).
- 4) 李圭景; 五洲衍文長箋散稿, 下卷, 影印版, 東國文化社, 370 (1959).
- 5) 金東旭; 韓國服飾史研究, 影印版, 亞細亞文化社, 370 (1973).
- 6) 柳喜卿; 韓國服飾史研究, 梨花女子大學校 出版部, 369-370 (1975).
- 7) 金東旭; 前掲書, 373.
- 8) 柳得恭; 京都雜誌, 韓國名著大全集, 11, 大洋書籍 160 (1972).
- 9) 純祖實錄, 卷二十二, 十九年三月.
- 10) 宣祖實錄, 卷二百十, 四十年四月.
- 11) 金用淑; 宮中「撥記」의 研究, 郷土서울, 18, 90 (1963).
- 12) 石宙善; 韓國服飾史, 寶晉齋, 107 (1971).
- 13) 高福男; 우리나라 服飾中 帶의 研究, 대한가정학회지, 14, 12 (1976).
- 14) 高宗實錄, 卷二十一, 二十一年五月.
- 15) 柳得恭; 前掲書, 159~160.
- 16) 黃沍根; 韓國裝身具史, 瑞文堂, 250 (1972).
- 17) 沈載完; 李殷昌編, 韓國의 冠帽, 資料叢書, 第一輯, 嶺南大學校 新羅伽倻文化研究所, 63-64 (1972).
- 18) 高麗史, 卷七十二, 志六十二與服條.
- 19) 孝宗實錄, 卷二十三, 十七年二月
- 20) 柳喜卿; 前掲書, 358.
- 21) 柳喜卿; 前掲書, 361.
- 22) 李晬光; 芝峰類說, 朝鮮古書刊行會, 法禁條, (1915).
- 23) 世宗實錄, 卷四十一, 十年九月.
- 24) 柳喜卿; 前掲書, 370.
- 25) 憑虛閣李氏, 閨閣叢書, 鄭良婉譯, 寶晉齋, 130 (1975).